서류전형 믿음, 면접 믿음

(이사야 29:1~24)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서류전형 믿음, 면접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서류전형 믿음, 면접 믿음'

입사지원을 하면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하게 되고 직무능력 검사 등의 과정을 걸쳐 합격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면접을 통해 입사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믿음에 비유해보면, 서류전형 믿음과 면접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진정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회사에 비유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입사지원자와 같은 위치에 계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입사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지원서가 있고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도 있습니다. 또 이력서가 있고 자격증이나 추천서 혹은 이루어 낸 업적이 있다면 업적 증명서 등도 포함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이러한 모든 서류들이 지원자의 특징을 드러내줍니다.

여기서 합격자들이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류전형은 보통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4명 중에 한 명만이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30:1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서류전형에서 30명을 뽑고서 면접을 통해 한 사람만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면접의 비중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별의별 스펙들을 가지고 전형을 할지라도 역시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일꾼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니 직접 만나서 말도 해보고 인상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접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궁금한 것입니다. 서류로써는 해결되지 못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도 시켜보고 분위기도 느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적용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서류전형을 하듯이 성경공부를 통해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셀 수도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이름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선민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끌어안으시려 하십니다.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교리들은 마치 서류전형의 서류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면접관처럼 우리 인생에 입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제출하신 어마어마한 서류들을 공부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면접의 과정으로 가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공부나 교리 등으로 비유할 수 있는 서류면접을 보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면대면 면접의 자리에 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서류전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신학대학의 총장님이나 교단의 총회장님까지도 하나님과 면대면 면접을 해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전형을 하듯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화려한 스펙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면접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신으로 합격시켰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면접을 하고 나면 굳이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면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채 서류상의 하나님을 놓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사장님이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스펙이나 자격증을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그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예상대로 회사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일을 잘 해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문제는 사장님은 여전히 그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사원 자체로서가 아닌 그의 기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통해 하나님을 신으로 합격시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들과 교리를 살펴보고 신학적으로 어떠한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직원으로 합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면접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진 기능만이 잘 수행되면 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에서 터진 문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의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의 기능을 이용하기 원할 뿐입니다. 그 결과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저는 특별한 인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신학대학 총장님으로부터 교수님,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과학이 진화론을 갱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는가? 등의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화론을 새롭게 해석하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망상(delusion)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갑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74쇄나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들의 논리에 혹해서 초토화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젊은이라도 교회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서류들을 접해보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과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 자리에서 창조론을 주장하거나 증명하려 하지말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맞서서 창조론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과 목회를 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진화론자들과 싸워서 창조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젊은이들에게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접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들이 바로 신학자이고 목사여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듯 '사람의 계명'이란 곧 세속적 가르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운운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능만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

니다. 하나님의 기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단지 서류로만 배웠습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 해온 신학이라는 이름의 서류들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정작 교단의 총회장님이나 신학대학의 총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나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면접의 자리에 이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서류전형의 단계에서 받아들였을 뿐 면접단계로 가서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새롭게 해석되면 그것과 대항하는 창조론을 주장할 뿐 창조주 자체를 만나게 해줄 생각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돈을 향해 갔습니다. 혹은 승진이나 건강을 향해서 갔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목회와 부흥으로 갔습니다. 서류상으로 합격시킨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서류상으로 인정해서 나의 신으로 합격을 시켰으니, 이제 그 능력이 발휘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지혜 없는 모습입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면접을 보아야합니다. 면접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아리엘은 번제단을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신 이유가 바로 번제단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1절을 하반부를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절기 때 모여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핵심은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게 바뀌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을 면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상번제를 지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로 약속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면접이 상번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번제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창조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조주를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는 말씀은 곧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뜻합니다. 바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놓인 것들을 치워야합니다.

‘가족이 잘 살아야 한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좋겠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얼핏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내가 번제단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정문제, 사업문제, 자녀문제 등이 끼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령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참된 번제의 방법을 지시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가정을 사랑했고 그 결과 가정이 마음에서 가장 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이킬 방법으로써 가정을 가장 사랑하게 된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벌목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로 죽는 어린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벌목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어린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벌목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면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내가 꼭 번제단에 가지 않을지라도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돈 건강 애인 승진 사업 등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문제를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과 가까워진 마음이 어린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면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면접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과 면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서류상으로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크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남 왕국 유다 전제를 말합니다. 뒤의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남 왕국 유다가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제물처럼 타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번제단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기 위해서 세상을 가깝게 여기던 마음은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과 가까워진 마음을 더욱 살리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는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이용했음으로 제사의 목적인 삶 자체가 불타버려 잿더미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는 앗수르를 통해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경고를 통해서도 선민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민들이 세상과 가까워진 마음을 죽이는 용도로 번제단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평강과 만족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가까이 치고 들어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정이나 건강문제가 마음에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능만을 바라면서 서류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건강 자녀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능이 발휘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단을 남용한 결과로 인해 목적했던 것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제단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을 대신하신 주님은 역사적으로는 한 번 죽으셨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서류전형으로 끝내고 그 능력만을 이용하려 합니다. 성경공부나 교리가 말하고 설교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마음에서 가까이 여기는 가족과 건강과 사업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면접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면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

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 외에는 하나님과 면접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론은 증명이 아닌 선언과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심을 마음 속 깊이 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서류전형의 단계로부터 벗어나 면접단계에 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류전형 믿음에서 면접 믿음의 단계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바꾸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온 세상이 리처드 도킨스 같이 논리적으로 미신을 믿는 무당들에게 현혹되어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만나면 해결되는 일임에도 창조론을 붙들고 과학자들과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생활화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창조주와 면접하여 만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